

제21호 성원산업개발(주)김귀훈 대리



철저한 안전교육으로 무재해 일터 이룩

제법 쌀쌀해지는 바람이 가을의 끝자락을 알린다. 짧게 사라져가는 가을이 못내 아쉬워지만 아름다웠던 단풍이 있었기에, 가을비 살짝 머금은 늦가을 경기도 화성에서 성원산업개발 김귀훈 대리를 만나보았다.


대학교에서 안전공학을 전공하고 안전관리자의 길을 걷은지 7년이 되었다는 김귀훈 대리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라는 슬로건 아래 전주월드컵경기장과 광주지하철을 성공리에 완공한 성원건설(주)에 1997년 11월 입사하여 안전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1년 7월 성원산업개발(주)로 발령받아 현재 '화성 동탄 성원 상떼빌 현장' 에서 전담 안전관리자로서의 전문직을 발휘하고 있다.

■ 안전교육이 최우선되어야

안전업무를 담당하면서 무재해를 이룩했을 때가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김귀훈 대리는 전주 서곡주공아파트 100만시간, 서울 염창동 재건축현장 50만시간, 화성 동탄 성원 상떼빌 현장 100만시간 등의 무재해를 달성한 바 있다. 이에 김귀훈 대리가 특히 신경쓰는 것은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이다. 안전교육이 아말로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수순이며, 강조에 강조를 더하여도 절대 지나침이 없다는 것이 그의 안전론인 것이다.

건설현장에는 다양한 공종으로 여러 가지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공종에 맞는 공종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이 담당하는 공종을 알아야 위험 요소에 대해 숙지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을 함에 있어 당근과 채찍은 항상 병행되듯, 근로자들의 포상도 잊지 않는다.

요즘 현장은 예전과는 달리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의사소통 문제나 그들의 의식 자체도 우리와 상이하여 일률적인 교육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에 김귀훈 대리는 완벽한 외국어는 아닐지라도 그들에게 다가갈 마음으로 통하는 교육을 실시키 위해 직접 외국어를 공부하여 그들에게 맞는 눈높이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작년에 결혼한 새신랑 김귀훈 대리는 가정만큼이나 일터를 사랑한다.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근로자들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에서 안전의 사랑의 일터가 움트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성호연기자〉